

인터뷰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전개 일면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 “군장병 절반이상 불자로 만듭시다”

### 군법당·사찰·기업 결연운동으로 군포교 활성화 실현

### 병영 문화에 맞는 전략구축...만인회 결성 등 전방위 노력

“전방지역에는 2명의 군법사가 15개가 넘는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종병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법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당이 없어서 개조된 막사에서 군법사 없이 자체법회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군불교의 현실이네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사진)에게 ‘군포교 활성화’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기존의 군불교위원회를 군종교구로 발전시키면서 군포교에 새로운 희망이 쬐트기 시작했지만, 군포교의 어려운 여건은 나아진게 없다.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교계의 관심과 후원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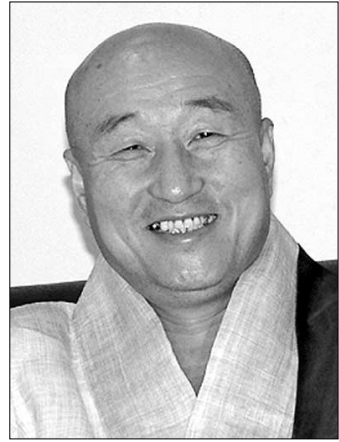
2004년 국방부가 조사한 군 신자 현황을 보면, 불교는 15만여명으로 28만명에 달하는 개신교 보다 13만명이나 적다. 이를 지도할 군종장교의 수에서는 더욱 열악해 불교는 개

#### 3대 종교 군종교사·외부지원 현황

불교	397개	군법당
개신교	2억4천만명	외부지원
가톨릭	973개	군교회
	95억원	외부지원
	281개	군성당
	33억원	외부지원

신교 27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6명에 머물러 있다. 종교시설로 따진다면 군불교의 열악한 여건은 극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현재 군법당은 397곳으로 군교회 973개소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군불교 상황’은 외형적인 수치 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군내 인력과 시설로 펼쳐지는 군포교 활동보다 군 외부에서 지원되는 인력과 재정 등의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불교계의 지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기독교 교단에서 군신교를 위해 투입한 재정은 기독교군신교연합회(개신교) 95억원, 가톨릭 군종교구청 33억원에 달했다. 반면 불교는 조계종에서 지원한 2억 4천만원이 전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불교계 지원이 다른 종교에 비해 턱없이

못하는 점도 군포교 현장의 암울한 한 단면이다. “불교계의 외부 지원은 근래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양적이든 질적이든 뒤쳐진다”는 군법사들의 불만소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면 스님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구 출범과 함께 ‘군포교의 성공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이라는 표어 아래 달라진 병영문화에 맞는 포교전략 구축과 군 장병 50% 불자화를 군종교구의 목표로 세웠다. 만인회 결성을 비롯해 후원 조직, 재원 조성 등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선정했다. 본지와 함께 진행하는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도 군포교 활성화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다.

“군종교구는 2006년을 군포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전개할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대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군법당과 사찰, 기업이 다함께 힘을 모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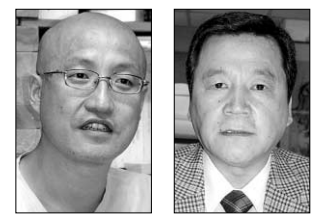
박봉영 기자



## 1사단 수색대대 법당 첫 결연

### 김포 용화사 정기법회 지원·장병 상담 소주통상 법회·각종 행사 등에 물품지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 불교신문이 ‘2006년 군포교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1군법당 1사찰 1기업 후원 결연 맺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는 가운데, 캠페인 시작 1주일만에 소주통상과 김포 용화사, 1사단 수색대대 법당이 첫 번째 결연을 맺었다.



지관 스님 김진관 대표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적극 동참하겠다고 있는 김 대표는 “법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불교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물품상면으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법기 군법사(1사단)는 “군법사 2명이 15개에 달하는 군법당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사단 수색대대는 50여 명의 군법사들이 자체적으로 법회를 보고 있다”며 “이제는 어법한 법회를 병행하게 돼 기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진관 대표도 1사단 수색대대 법당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강유신 기자

## 누구나 캠페인 동참 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합니다.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합니다.
- ▷군법당 건립 후원 : 낮은 군법당 재건, 신축을 지원합니다.
- ▷정기적인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합니다.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합니다.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의식곡 소리통일 시도 진각종 진각합창단

진각종 의식곡에 대한 소리통일화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서울교구 진각합창단(단장 대성지)은 ‘진각종 소리통일화 작업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12월 26일 서울 도선동 밀각심인당에서 종단 의식곡에 창작성을 가미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진각종의 범례의식인 괴리창회, 강도발원, 오대서원가, 경전봉독, 육자진언연송, 회향발원가, 회향창회에 음악이 가미돼 진행됐다.

이와 1990년대 이후 생겨난 가곡풍, 전불대중가요 스타일의 무상, 향심,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불자들이 선호하는 찬불가와 국악인 박애리, 바리튼 홍일씨의 폐사지 보존 관련 창작 음악을 선보였다. 김원우 기자

## 진각종 자성학교 교사연수

진각종 제 30기 자성학교 교사연수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진각종 포교부(부장 회성) 주관으로 열린 자성학교 교사연수는 요가, 점토공예, 찬불동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교재 구상 등의 다채로운 방안이 모색돼 자성학교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원우 기자

## 종단 법인화 등 의결 조동종 중앙총회

조동종(총무원장 심원)은 12월 27일 서울 총무원 용천사에서 제37차 중앙총회를 열고 2005년 예산 집행결과를 심사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의장 해륜, 감찰위원장 대은, 포교위원장 통원, 국제선원장 법공 스님 등 총회의원 21명이 참석한 중앙총회에서 조동종은 올해 사업으로 종단 법인화, 5월 중구 조동종 발상지 남창 보리선사 성지순례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조동종은 보리선사에 조동종 창종을 기념하는 비석을 종도들의 뜻을 모아 건립키로 했다.

강유신 기자

본지 556호 7면 “지역불교 현장을 가다-북제주” 제하의 기사에서 ‘태고종세가 조계종 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호법부 중앙감찰에 김갑영 군법사 임명

조계종 호법부는 12월 29일 중앙감찰에 김갑영 군종교구 호법국장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 호법부는 “업무 특성상 호법활동이 미미했던 군종교구 호법업무 회복과 추진을 위해 임명하게 됐다”며 “향후 종단과 군종교구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호법 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중도 신뢰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영 중앙감찰은 1978년 사미계 82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88년 육군 중위로 임관한 김갑영 중앙감찰은 육군3사관학교 군종법사 및 군종 참모 등을 역임한 뒤 현재 5군단 군종참모를 수행 중이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선거법 올해 개정될까?

### 청정선거운동본부, 총무원장에 제안서 전달

조계종 선거법 개정안이 올해 중앙총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7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 집행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은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며 “올해 중앙총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지난 9월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출범해 청정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서약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어낸 뒤 선거가 끝난 다음 해체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승가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포교”라고 지적한 뒤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준 청정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前 집행위원장 금강 스님은 “32대 집행부 출범 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보단이 31대보다 확대됐지만 항상 종단 근처에 계셨던 스님들로 구성됐다”며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일부 비개혁적인 스님들이 특보로 임명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처음 소임을 맡으면 임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적한 점들도 잘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청정선거운동본부는 ‘제32대 총무원장선거를 치우고 난 후 총무원에 올리는 제안’을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현행 간접선거를 산중총회법에 준하는 직접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교구

본사 주지 2인과 중앙총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공약제를 실시해 정책과 선거운동원을 미리 밝혀야 한다 ▲선거인단의 여비는 종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 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이러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출판 운주사 11월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학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정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 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연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부터 12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십시오!

현지균 현지사 펴냄 | 자재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 1795